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문 초록

이 책은 저자 오자와 다카코(小澤貴子)가 조부모 때부터 화장품연구소를 운영하며 알게 된 화장품 성분의 허와 실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도쿄 미용과학연구소 소장이자 『거짓투성이 화장품(ウソをつく化粧品)』(フォレスト出版, 2015)의 저자인 오자와 다카코는 이 책을 통해 오가닉 화장품 성분에 대하여 설명하며 어떠한 화장품을 선별해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책의 구성은 거짓투성이 화장품 리스트, 프롤로그와 서장, 5장의 본문, 에필로그까지 포함해 총 9장으로 되어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프롤로그와 서장, 본문 제 2장까지 번역을 하였다.

프롤로그와 서장에서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가닉 화장품에 어떠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가닉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오가닉 화장품이 많아진 배경과 그에 따라 발생된 화장품 성분표시의 허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성분표시에 허점이 생기는 데 일조한 화장품 성분법 개정 내용도 자세히 담겨 있다.

제2장에서는 오가닉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피해야 하는 성분도 알려주고 있다. 앞서 설명했던 대표적인 성분 피해 사건을 거론하며 잘못된 성분 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목차

| | |
|--|----|
| 국문 초록 | 1 |
| 목차 | 2 |
| 역자 서문 | 4 |
| 프롤로그 | |
| 가네보화장품 백반증 피해는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다 | 5 |
| 대부분의 화장품에 들어있는 침투제가 피부를 노화시킨다 | 7 |
| 오가닉 화장품은 정말로 피부에 좋을까? | 9 |
| 화장품 성분이 피부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왜일까? | 10 |
| ‘3가지’를 알고 있는 화장품 제조사를 선택하자 | 10 |
| 깨끗한 피부를 손에 넣는 단 ‘3가지 포인트’ | 11 |
| 서장 오가닉 화장품이니까 안심.....은 거짓말 | 12 |
| 초인기 오가닉 브랜드의 경우 | 13 |
| ‘식물이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짓말 | 16 |
| 실상은 무서운 ‘식물유래’ | 17 |
| 제1장 ‘거짓투성이 화장품’이 점점 늘고 있다 | |
| 오가닉 화장품 붐에는 ‘이유’가 있다 | 19 |
| ‘약사법 개정’의 진짜 이유 | 20 |
| 화장품회사가 증가한 이유 | 22 |
| 성분표시의 ‘허점’ | 24 |
| 역시 ‘조악한 화장품’이 늘었다 | 25 |

이렇게 ‘오가닉 화장품’이 늘었다 25

제2장 ‘화장품의 거짓말’은 점점 더 교묘하게

‘오가닉이라고 안전’하지는 않다 27

‘백반증 피해’가 보도되지 않은 진짜 원인 29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2

‘성분이 양호해서’ 깨끗한 피부를 가지는 건 아니다 33

‘마유’, ‘호호바오일’ 등 오일 하나만으로는 아름다워질 수 없다 35

‘마유’는 피지가 아니다 36

‘올리브유’에 의미는 없다 37

예를 들면 이런 ‘식물 엑기스’가 무섭다 39

‘향기 성분’에도 만만치 않은 독성 40

‘감귤류 성분’은 주의하자 41

‘식물 엑기스’가 많아지면 위험성도 더욱 UP 42

역자 서문

최근에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민감성 피부를 가지게 된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민감한 피부가 아니었으나 트러블이 전혀 없던 피부에서 기초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피부로 바뀌게 된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다. 세안 후 무방비상태가 된 피부에 바르는 기초 화장품은 색조화장품보다도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화장품 성분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부모 때부터 시작된 미용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부임한 후 피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했다. 기초 화장품을 고를 때 어떠한 성분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성분 판정의 지침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 뒷면에 기재 되어있는 성분표시를 봐도 함유된 성분에 대하여 피부에 적합한지 알 방도가 없으므로 피부에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인 절차 없이 제품을 구매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성분을 살펴봤을 때, 오가닉과 거리가 먼 성분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본 책에서 화장품 자체가 식품이 아닌 이상 완전한 오가닉 성분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오가닉 성분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피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성분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사람의 피부 상태는 컨디션에 따라서도 늘 바뀐다. 피부가 민감해졌다면 성분을 확인하는 자세를 지니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화장품을 선별하려 노력해야 한다.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부족한 논문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에 애써주신 교수님들과 많은 도움을 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5월

신문경

프롤로그

가네보화장품 백반증 피해는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미용대학(현재는 미용과학 강좌)은 화장품 업계에서 종사하면서 프로를 위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자 시작한 것으로 어찌어찌 60년이 흘렀습니다. 자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화장품의 원료, 제조 방식, 영양학, 두피나 피부 과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강좌를 시작한 이유는 본질을 추구한 미용법이 있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지식이 없으면 미용법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민감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아니면 ‘조금이라도 깨끗한 피부를 위해’ 모두 올바른 미용법이지요. 그렇다면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크림을 선택하나요?

‘어쨌든 첨가물, 방부제 같은 건 절대 안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오가닉’

‘민감성 피부를 연구! 세라마이드를 채워주니까 촉촉함이 달라!’

‘매출 넘버원! 10살 어려진 피부를 실감! 구매 후기 평가 4.85점 ★★★★★’

마치 청소용 세제를 살 때처럼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피부에 좋을 것 같다는 직감으로 고르지는 않나요? 어쨌면 유명한 화장품 구매 후기 사이트에서 찾아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화장품은 사용된 성분이 표시되는데, 식품과 비교해도 원재료가 난해하며 좋고 나쁨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는 화학과를 졸업 했지만 이과계열의 여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화학계에서는 미국, 일본 그리고 칠레에서도 통하는 공통된 명명법이 있으나 화장품 원료명은 명명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부에 좋은지 나쁜지 이름만 보고는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마치 잘 모르는 일본술이나

와인을 콜라보라는 말을 듣는 기분이죠. 알고 있는 주류 브랜드가 기껏해야 몇 개 있는 정도로 애당초 ‘맛있는 술’의 정의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피부에 좋은 화장품’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맛있는 술’은 사람에 따라 다를지도 모릅니다. 와인은 무거운 게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맛이 가벼운 게 좋다는 사람도 있겠죠.

미용계에서는 ‘기미, 주름’을 없애는 데 여러 방법이 있어 ‘○○식 미용술’ 같은 종류의 책이 많은 서점 코너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당장 내일 기미나 주름을 없애, 아름다운 민낯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20년, 30년, 젊은 분이시라면 50년 후의 피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작년, 가네보화장품에서 만든 미백화장품으로 인한 백반증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상품뿐만 아니라 현재 화장품회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에 따라서는 피부세포에 데미지를 준다’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는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강좌에서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각된 8년도 전에 바로 ‘미백화장품’을 거론하며 아버지가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바뀌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사람에 따라서는 두 배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깨끗해지는 방법과 장기적으로(저희는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깨끗해지는 방법은 다릅니다. 사실 장기적인 시점에서 깨끗해지는 방법으로 중요한 점은 **오가닉인지 무첨가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바로 깨끗해지지 않더라도 한 달, 두 달간 지속하는 사이 피부 변화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지속한 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미용법을 반세기 이상 지속해 오신 80대, 90대분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민낯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에 들어있는 침투제가 피부를 노화시킨다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지만 화장품 성분이 작용할 수 있는 곳은 각 질층이라는 무척 얇은 피부 표면까지라고 약사법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미를 제거하거나 주름을 없애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성분을 피부의 더 깊은 ‘내부까지 침투’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크림이나 세럼은 성분이 피부 내부까지 침투하여 탱탱한 피부로 만듭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화장품은 약사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어 화장품 성분이 서서히 피부 내부로 침투하도록 제조됩니다.

이렇듯 피부를 다시 젊게 만든다고 내세우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적은 없나요?

‘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화장품을 사용했더니 겨울에 건조 현상이 심해졌다’

‘미백화장품을 사용했더니 기미가 생기기 쉬워졌다’

‘요즘 민낫이 되면 피부색이 한 톤 칙칙해졌다. 생각해 보니 BB크림이나 CC크림 같은 토너와 크림과 세럼을 하나로 합친 화장품을 사용 중이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침투제로 인해 화장품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그러한 화장품 작용은 저마다 다른 형태로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늘어나게 합니다.

곤란하게도 미백이나 주름 제거 기능을 내세우지 않는 상품이라고 해서 침투제가 들어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을 사용했더니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 이외에는 쓸 수 없는 피부로 변했다’

1) 역주. 2014년 11월 25일 자로 일본의 ‘약사법’은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개정이 본서 집필 중에 이뤄져 본서 내에서는 구 명칭인 약사법으로 기재했으나 본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에 대하여 가필한다면 의약부외품 신청, 심사 수수료가 개정되어 금전적인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오일 클렌징이나 오일 샴푸를 쓰기 시작했더니 피부가 약해진 것 같다’

‘세럼을 사용했더니 피부 표면은 촉촉 하지만 피부 속 깊은 곳은 건조한 것 같다’

침투제는 유화제이므로 ‘기름과 물을 섞는 힘이 강하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분을 피부 내부로 침투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기름과 물을 섞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액 등은 기름과 물을 침투제로 섞어 산뜻한 텍스처²⁾로 만듭니다. 유액 등을 사용해 피부에 침투제가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피부에는 장벽 기능이라 불리는 게 있어서 피부는 주로 기름으로 코팅되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화장품에 포함된 **침투제는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까지 녹여버립니다.** 그 결과 깨끗해질 거라 여기고 사용했던 화장품 때문에 우리들의 피부는 기미, 주름, 건조, 민감 피부, 약한 피부 같은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침투제를 사용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지면

‘건조한 피부로 변해 피부 속 유분도 수분도 유출되어서 주름이 늘어난다’

‘피부 내부나 표면에서 기름이 빠져 메마른 상태가 되고 자극에 약한 민감성 피부가 된다’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되기 쉬워져 성분이 자극으로 변해 기미가 생기기 쉬워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피부는 어떤가요?

2) 역주. 화장품 세계에서 텍스처란 화장품을 만졌을 때의 촉감, 발랐을 때의 촉감, 그리고 피부에 없었을 때의 질감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뜻한 텍스처, 끈적거리는 텍스처 등으로 표현한다.

오가닉 화장품은 정말로 피부에 좋을까?

오가닉 화장품이나 논케미컬 화장품 등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불리는 화장품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서양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2001년에 일본 약사법이 개정된 후 수입이 쉬워졌고 일본 국내에도 단숨에 늘어났습니다.

서양인들은 기미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조시간이 적은 지역이 많은 서양에서는 여름에 리조트지에서 확실하게 피부를 태우는 게 부자의 상징입니다.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여름에 검은 양산을 쓰고,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는 일본인의 모습은 꽤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실제로, '왜 그러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어. 이상한 모습이잖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리조트지에서 양산을 쓰고 있는 것은 일본인과 다른 아시아인뿐입니다.

오가닉 화장품에서는 식물이 가져다주는 피부가 깨끗해지는 효과를 내세우지만 사실 식물에는 '식물 독'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약이 약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때도 있다는 말과 같이 미용작용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식물 독의 자극으로 기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양인은 자연 식물이 지닌 독 때문에 생기는 기미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침투제 같은 성분도 서양에서 개발되어 화장품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침투제 사용방식에도 무척 관대합니다. 서양은 일본과 달리 심하게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라도 보습 성분을 피부 내부로 침투시키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면 자극에 약해집니다. 피부는 촉촉해도 기미가 생기며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피부 유분이나 수분을 유지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피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기미가 생기길 원치 않는 일본인이 기미를 신경 쓰지 않는 문화를 가진 해외 화장품을 사용하는 건 화장품에 상당한 일가견이 없다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오가닉 화장품이라고 해서 피부에 안전하고 안심된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화장품 성분이 피부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왜일까?

광고를 잘 봐주세요. ‘나노콜라겐이기 때문에 피부에 침투하여’라든지 ‘미용 성분이 확실히 침투해 눈가에 생기가 돕니다’라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에서도 하단에 반드시 ※표시로 ‘화장품이 작용하는 것은 각질층까지입니다.’라는 문장이 무척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각질층보다도 깊은 내부까지 침투된다고 표기하면 약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 법률에서는 화장품 성분이 각질층까지만 작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걸까요? 화장품 성분을 피부 내부까지 침투시키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적어도 지금보다 깨끗한 피부는 손에 넣기 쉬워집니다. ‘꼭 탈법 허브³⁾ 갈네’라며 재미있게 읽어 주시면서 각 화장품회사가 어떠한 생각이거나 정책으로 제품 제작을 하고 있는지 자세만이라도 지켜볼 수 있게 된다면 성분 하나하나를 모르더라도 깨끗한 피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3가지’를 알고 있는 화장품 제조사를 선택하자

화장품을 고를 때는 제조사가 다음 3가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 ‘피부 장벽 기능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 토너나 크림의 ‘본래 목적’을 알고 있는가?
- 좋은 성분을 다 담는 게 아니라 ‘피부 환경을 조성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3) 역주. 탈법 마약의 일종. 영어권에서는 단순히 합성 대마, K2라고도 불린다.

복잡한 화장품 업계이므로化妆품을 바를 생각으로 사용한 게 피부에 거짓을 바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기 있는 화장품과 피부에 이로운 화장품은 전혀 다릅니다.

이 책은 스스로 피부에 이로운 화장품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미백화장품이나 보습 화장품, 오가닉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올바른 처치”를 통해 깨끗한 피부를 실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건조한 피부나 나이가 들어 생기는 칙칙함 등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 달은 걸리나 확실히 깨끗한 피부로 변해갑니다.

깨끗한 피부를 손에 넣는 단 ‘3가지 포인트’

깨끗한 피부를 손에 넣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 ‘강한 침투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피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시킨다.
- 피부 장벽 기능⁴⁾이 약해질 때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은 ‘물로 씻어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건강한 장벽 기능이 갖춰진 피부로 되돌아오면 ‘적당한 자극’을 피부에 준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다시 한 번 이 페이지를 읽어 봐주세요. 분명 화장품의 거짓말도 진실도 한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오자와 다카코

4) 역주. 원서에는 ‘機飽’으로 표기했으나 출판사에 문의한 결과 오식(誤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본래 쓰려던 단어는 ‘機能’라는 단어이므로 ‘기능’으로 번역하였다.

서장 오가닉 화장품이니까 안심……은 거짓말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오자와 다카코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도쿄미용과학연구소에서는 할아버지 시절부터 주로 프 로 이·미용사를 중심으로 피부 구조나 화장품 화학에 대해서 ‘피부 미용 과학’이 라는 이름의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피부과학에 우리의 80년을 넘는 경험을 더해, 연구를 거듭해 온 “올바른 처치”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바보가 바르는 화장품』 (2004년, 메타모루출판 간행), 『깨끗한 피부로 있고 싶어! 화장품을 어떻게 고르 지?』 (2001년, 유에이전시 간행) 등에서도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비누로 씻을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따끔따끔 거립니다.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성분을 조사해주시겠어요?”

“오가닉인 천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트러블이 생길까요?

제 피부가 나쁜 걸까요……”

라는 고민 상담이 쇄도합니다.

매일 많은 여성의 의문과 질문에 답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성들의 피부가 매년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토피피부염이나 알레르기가 늘고 있다고 자주 보도돼서 여러분도 어찌면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전과 비교해 여성들의 피부는 약해지고 있으며 건강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라이프나 로하스⁵⁾ 같은 자연 회귀적인 움직임이 높아지고 요가와 러닝, 매크로바이오틱⁶⁾, 그린스무디 등 같은 내추럴한 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역주.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건강과 지구환경, 지속 가능한 사회생활을 꿈꾸는 생활 스타일을 말한다.

6) 역주. Macrobiotic은 곡물, 채소, 해조류 등을 중심으로 한 장수식사법을 말한다. Macro는 크다, 장수한다, Bio는 생명, Tic은 방법, 학문을 의미한다.

이는 저희가 몸 담고 있는 화장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가닉 화장품’, ‘내추럴 화장품’, ‘자연주의 화장품’ 같은 문구로 많은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요즘에 늘었어요.

자연적이라면 당연히 몸에도 친화적이며 피부에도 친화적일 터.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가닉 화장품’, ‘내추럴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테죠.

그런데도 우리 연구소에 밀려드는 고민 상담들은 조금도 줄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좋은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면 고민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사용한다는 오가닉 화장품의 원료를 조사했을 때, 너무나도 불성실해서 ‘도가 지나친다’는 분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초인기 오가닉 브랜드의 경우

멋스러운 쇼핑센터에 많이 출점하며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외국계 오가닉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샴푸를 조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오가닉 브랜드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오가닉 식물을 비롯한 천연성분만을 배합하고 있습니다. 논실리콘&논케미컬을 실현해 계면활성제에는 옥수수유래 성분을 사용. 방부제에는 때죽나무나 사탕무 당 유래성분을 배합하고 있습니다.

‘잘도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가닉 화장품에 한정된 게 아니라 화장품 전반에 걸쳐 자주 보이는 수법입니다.

이 화장품회사에서 말하는 ‘천연성분’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논케미컬’ 반의

어로 쓰이는 걸까요? 그러나 식물로도 ‘화학 물질’로 취급돼 꺼려지는 합성계면활성제나 방부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화학의 힘’입니다. 그렇지만 위문장에서는 계면활성제에도 방부제에도 옥수수나 매죽나무 같은 식물이 원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회사가 ‘아름다운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천연성분’을 표시한 그림(15페이지)에는 벤조산나트륨⁷⁾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벤조산나트륨은 전형적인 합성보존제로 식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발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천연성분으로 합성할 수 있어 오가닉이나 논케미컬 계열의 화장품에서 마치 천연물질인 것처럼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최종적으로 벤조산나트륨이라는 성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래가 천연이든 화학 물질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보존제라도 더 질 좋은 게 있는데, 오가닉을 세일즈 포인트로 쓰려고, 다시 말해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 배합하고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아무리 원료가 식물이고, 더욱이 오가닉이라고 주장해도 결과적으로 샴푸에 배합하도록 가공된 성분은 화학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식물 유래든 아니든 추출되어 화장품에 배합된 성분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습니다. 화장품으로서 제품화된 이상 ‘논케미컬’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로릴황산나트륨⁸⁾, 파라벤, DEA, MEA, TEA 미사용’, ‘계면활성제에는 옥수수 유래 성분을 배합’이라며 계면활성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상품에는 동등한 세정력이 있는 강한 합성계면활성제를 배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에 있는 데실글루코사이드(옥수수 유래)는 데실알코올과 글루코스폴리머로 만드는 합성계면활성제입니다. 확실히 천연 유래입니다만 의미는 없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계면활성 성분이 배합되었는데, 이대로는 그중에서도 작용이 약한 한 가지 성분만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7) 역주. 영어 학명은 Sodium benzoate이며 청량음료, 가공식품 등의 보존료로 사용된다.

8) 역주. 영어 학명은 sodium lauryl sulfate이며 자극이 강한 계면활성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민감성 피부인 사람은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인기 오가닉 브랜드가 공개하는
'아름다운 머릿길을 가져다주는 천연성분' 표시도



그리고 ‘로릴황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 성분은 매우 강력한 세정제이며 금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만큼 세정작용이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품에는 ‘SLSA (Sodium Lauryl Sulfoacetate)⁹⁾’라는 성분이 배합된 적이 있습니다. 설포(Sulfo)

란 황산을 의미하며 이 성분은 로릴황산나트륨과 비슷한 종류입니다. 요컨대 옥수수 유래 데실글루코사이드 이외에 자사가 금지하고 있는 로릴황산나트륨과 동등한 성분을 사용했었다는 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성분표시는 좀처럼 알 수 없게 배치해놨지만 하이드롤라이즈드 콩단백질 등의 계면활성제, 유화제가 많은 데다가 건조작용이 있는 유헤이나 자몽 과피유가 포함되어 있어 이 제품이 두피에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계면활성제를 많이 배합한 샴푸에 식물 엑기스를 함유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식물이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짓말

‘식물 엑기스 배합’인 화장품. 자주 보이죠.

오래된 데이터라 죄송하지만 2006년에 아버지가 조사해본 바로는 화장품 원료 중 약 23%가 식물이나 해조류를 원료로 하고 있었습니다.(식물 기름이나 정유¹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분 종류는 매년 늘고 있으므로 현재는 아마 그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인기 있는 ‘식물 엑기스’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약효’입니다.

식물 엑기스 배합이라고 하면 ‘약초’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많은 분이 ‘약효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식물 엑기스에는 피부조직에 직접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 엑기스에 약효가 있다고 해도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내부로

9) 역주. 소듐 라우릴 설포아세테이트(Sodium Lauryl Sulfoacetate). 줄여서 SLSA라고 한다. 천연 계면활성제로 천연 화장품, 특히 샴푸에 많이 쓰이는 계면 활성제 중 하나이다.

10) 역주. 식물의 가지와 줄기, 뿌리, 꽃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방향유, 휘발유.

침투시키지 않으면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 성분을 피부 내부로 침투시키는 합성계면활성제를 듬뿍 배합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독성’입니다.

식물은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약’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약초라 불리죠. 약으로 쓰이는 면이 있는 한편 식물은 천적인 미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식물 독’이라는 독을 가지게 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번영해 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깥의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 안에 독을 축적해 온 겁니다.

실상은 무서운 ‘식물 유래’

많은 사람이 식물에 대해서 ‘약이 된다’,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식물은 ‘약’이 되는 한편, 기본적으로 ‘독’을 갖고 있습니다. 약이든 독이든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작용’, ‘효능’, ‘자극’이라고들 말합니다.

화장품으로 사용할 때는 꼼꼼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성분이라고 강조하는 경우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피부는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벽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독으로부터 지키거나 입을 통해 들어온 독을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화장품회사는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독이라고 인식하고 원하는 효과가 독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할 만큼 좋은 성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피부가 무방비해지는 타이밍, 사용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오가닉 브랜드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렌징 제품이나 세안 시에 함께 배합된 성분이 침투를 유발하는지 즉 합성계면활성제는 아닌지, 또는 피부 장벽 유지 기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소비자도 ‘식물 유래 천연성분’이라는 문구에 금세 현혹되기 쉽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 유래’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무서움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어떤 화장품회사가 신문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며 “소비자가 식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므로 식물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식물 유래이기 때문에 안심’된다고 믿어버리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 유래 성분이 이 정도로 시장에 돌고 있는 이상 소비자들도 식물 안전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식물 유래가 실제로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시작으로 화장품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해왔던 거짓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 뭐였단 말이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죠.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피부를 위해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유래가 실제로는 위험하며 오가닉이라고 말하면서 오가닉이 아니라는 사실은 **화장품회사가 하는 거짓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1장 ‘거짓투성이 화장품’이 점점 늘고 있다

오가닉 화장품 붐에는 ‘이유’가 있다

슬로우 라이프, 로하스붐에 발맞춰 오가닉 화장품, 내추럴 화장품, 자연주의 화장품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가닉 화장품 같은 제품이 늘어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건강·자연주의를 지향하게 된 점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화장품회사가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하기 수월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법률인 약사법이 대폭 개정된 점입니다.

2001년 4월 후생노동성은 화장품 제조에 쓰인 전성분을 제품에 기재해 소비자에게 명시하는 제도 ‘전성분표시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배합돼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큰 제조판매업자들로 조직된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라는 단체는 전성분표시제도가 제정된 의미를

‘(제품에는) 모든 성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특정 성분으로 피부 트러블이 난 적 있는 분은 그 성분이 배합된 제품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성분표시제도’가 제정된 한편 ‘의약품’ 중 ‘의약부외품’이라는 항목이 남았습니다.

원래 약이나 화장품은 ‘의약품’, ‘화장품’, ‘의약부외품’, ‘의료 용구(현재는 의료기기)’ 4가지로 분류됐습니다. 화장품은 전성분표시가 의무화됐습니다만 ‘의약부외품’이라는 항목이 남은 거죠. 게다가 그 안에 ‘약용 화장품’이라는 항목이 있습

니다. ‘의약부외품’은 약과 화장품 사이에 위치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유효성분’이 배합되어있는 화장품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화장품과 달리 약용 화장품은 전성분표시 의무가 없고 사용하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극히 드물게 알레르기 등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102종류의 ‘표시지정성분’만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계기로 의약부외품 수가 급증한 겁니다.

이 약사법 개정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여러분에게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화장품 성분은 전부 표시되었을 텐데 성분 하나하나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이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있다고 대답하신 분. 대단합니다. 그러나 조사할 때 비교해 본 리스트가 화장품 성분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독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정리한 게 아니라면 전혀 의미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화장품 성분의 독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공공기관이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약사법 개정’의 진짜 이유

소비자에게 ‘화장품 성분에 대하여 조사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화장품 성분의 독성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가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은 2001년 4월 약사법 개정 전까지는 그와 가까운 게 있었습니다. 소비자용이 아니라 화장품회사용입니다.

2001년 약사법 개정 전에는 화장품을 제조·판매·수입하기 위해서는 화장품회사가 사전에 후생성(현재 후생노동성)에서 세안제, 크림 등 제조하는 종류별로 세세하게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해도 좋은 성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 이외의 성분을 배합할 경우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고 사용할 때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성분표시제도의 도입으로 상황은 일변합니다. 일부 제한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어떤 성분이라도 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부 제한이란 ‘포지티브 리스트’와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두 가지 리스트를 말합니다.

A [포지티브 리스트]

방부제, 자외선 흡수제, 타르 색소 중에서 배합 가능한 것.

B [네거티브 리스트]

방부제, 자외선 흡수제, 타르 색소 이외에 배합금지 또는 배합량의 제한이 있는 것. (그 밖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있는 화학물질, 의약품, 생물 유래에 대한 제한도 포함된다)

즉 방부제, 자외선 흡수제, 타르 색소는 A리스트에 기재 되어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나머지 성분에 관해서는 B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신규 성분도 포함해서 승인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화장품회사에

“A와 B리스트에는 주의해. 나머진 어떤 식으로든 배합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회사는 색다른 성분을 사용해서 점차 신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성분에 관해서 최소한의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니 나머지 스스로 알아본 다음 본인이 책임지고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약부외품인 약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102종류의 ‘표시 지정 성분’ 이외에는 기재할 필요 없이 새롭게 배합된 성분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은 안전성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컨대 ‘전성분표시’와 ‘의약부외품’ 제정이란 화장품 제조의 대규모적인 규제 완화이며 국가가 소비자를 지키는 책임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생명, 생활, 건강을 지킨다’라는 게 행정기관의 본래 업무일 터입니다.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닌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하는 일입니다. 화장품인 경우에는 성분 체크를 꼼꼼히 해

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독성 있는 화장품 성분을 규제해야 합니다.

일본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됐던 성분은 2000년까지는 타르 색소를 포함해도 약 2,900종이었지만 현재는 1만 종을 넘었습니다.

화장품회사가 증가한 이유

최근 10년 사이에 화장품회사가 꽤 증가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눈에 띄는 점이라면 가전 브랜드나 필름 브랜드, 어패럴 브랜드, 보석·액세서리 브랜드 등 타 업계의 진출입니다.

이러한 신규 진출이 급속히 늘게 된 이유는 2001년 약사법 개정 이후, 화장품 제조 규제 완화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할 때의 세세한 규칙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바뀌고 새로운 원료도 사용하기 쉬워졌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비전문가라도 화장품을 만들기 쉬워진 거죠.**

필름 브랜드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정도로 디지털카메라가 업계를 석권하고 있다면 필름 브랜드 입장에서는 많은 사원을 미래에도 안고 갈 수 있을지가 걱정됐을 겁니다. 내려가는 수익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값싼 원료를 사용해 비용을 낮추고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사업은 무엇인지 생각한 거겠죠.

그러한 사업이 실현 가능한 형편 좋은 업계. 그게 정확히 2001년 약사법 개정 이후 화장품 업계였습니다.

일본 화장품공업연합회의 정회원 기업 수도 2001년 규제 완화 전에는 700여 개사였지만 2001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14년 현재는 1,100여 개사를 넘었습니다.

화장품은 광고 기법에 따라 효과가 크므로 이미지만으로도 팔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오가닉 브랜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료비의 몇십 배나 되는 가격을 붙여 고액으로 팔 수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라면 ‘대충 이 정도 원가구나’라고 먹는 사람도 상상이 갈 겁니다. 면, 조

미료, 고기 그리고 채소도 평소 직접 구매하니까요. 그렇지만 화장품 원가는 웬만해선 소비자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 세럼, 만 엔이래. 진짜 비싸다! 분명 비싼 성분을 사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원가가 엄청 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수두룩합니다.

몇 번이고 예로 들어 송구스럽지만 앞서 말씀드린 오가닉 브랜드 샴푸는 2천 엔 이상인데 내용물 원가는 기껏해야 몇 퍼센트 정도 아니겠습니까? 광고비나 설비 투자가 막대할 테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익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만 엔을 호가하는 고가 화장품인데

‘이거 원가는 수십 엔 정도 아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품은 정말 자주 보입니다.

화장품 업계는 손쉽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달콤한 열매인 겁니다.

이렇듯이 화장품 업계에의 신규 진출은 우수한 사업모델로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진주를 몸에 걸친 할리우드 여배우가 고농도 펠배함 세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비싸더라도 팔리는 세상입니다. 공업 제품 가공 공정 중에 나오는 찌꺼기라도 새롭게 개발된 성분이라며 유명한 텔런트를 기용해 대대적으로 광고한다면 팔립니다.

화장품은 이미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일 수 있으며 비싸게 팔리므로 이익률이 높은 업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불경기라 좀처럼 이익이 오르지 않는 타업종에서 진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역시 규제 완화에 따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화장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성분표시의 ‘허점’

2001년 약사법이 개정됐을 때, ‘전성분표시제도’와 함께 ‘의약부외품’이 제정됐다고 말씀드렸죠.

‘유효성분’이 배합된 화장품이라면 ‘의약부외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약부외품에는 발모제, 염색제, 약용 화장품 등 여태껏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비타민제나 요소크림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약용 화장품이라면 102종류의 ‘표시지정성분’만을 기재하면 모든 성분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화장품과 약용 화장품의 차이점은 ‘유효성분’의 함유 여부입니다. 유효성분은 후생노동상에 의해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된 것으로 유효성분이 한 종류, 소량이라도 배합돼 있다면 약용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표시지정성분 이외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몹시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유효성분의 효과를 끌어내려면 피부 보호층을 파괴하고, 피부 내부까지 유효성분을 침투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역시 합성계면활성제입니다. 성분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성분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침투제 역할을 할 합성계면활성제가 배합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약부외품은 전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알 방도도 없습니다.

즉 약용 화장품이라는 종류는 화장품에 합성계면활성제나 표시가 꺼려지는 성분을 배합하고 있는 경우 유효성분을 추가하면 전성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용이라고 하면 약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화장품보다도 피부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게 소비자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약용 화장품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아닙니다.**

역시 ‘조악한 화장품’이 늘었다

큰 규제 완화를 거치고, 문외한 기업의 신규 진출을 불렀던 화장품 업계.

전성분표시와 약용 화장품이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이용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밀려오는 상담문의는 2001년 약사법 개정 이후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저는 아버지와 『스스로 조사해서 채점할 수 있는 화장품 독성 판정 사전』(메타모루출판 간행, 이하 『화장품 독성 판정 사전』)이라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 한 가지 한 가지가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서적을 발행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같이 성분 하나하나 화학식을 조사하며 독성 유무를 검증해서 만든 사전입니다. 이는 현재 화장품 원료의 독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이 사전은 어딘가 화장품이 이상하다고 눈치챈 소비자분들이 구입해 주셔서 화장품 고르기 기준으로 사용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성과가 있었는지 서서히 화장품회사도 독성 있는 성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식했을 겁니다. 새롭게 개발된 화장품에는 확실히 독성 있는 성분을 사용하는 건 줄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가닉 화장품’, ‘내추럴 화장품’, ‘논케미컬·자연주의 화장품’,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 등 언뜻 ‘합성’이나 ‘화학 물질’과는 거리가 멀어 마치 피부에 좋을 것 같은 화장품이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오가닉 화장품’이 늘었다

서장에서 소개해드린 인기 오가닉 브랜드 상품. 정말이지 심각한 내용이었지만 원래 일본보다도 해외의 화장품 규제가 느슨하고 화장품에 대한 사고방식이 일

본과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원래부터 합성계면활성제가 많이 함유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화장품 규제가 완화되어서 옛날 같았으면 걸릴 것 같은 화장품이 해외에서 앞다퉈 수입됐습니다.

본래 일본 화장품은 허가받은 성분만 배합할 수 있었습니다. 유효성분이 아니라도 새로운 원료를 화장품에 추가하려는 경우는 전부 화장품 원료로 신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해외와 비교해서 종류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게 상당히 곤란했던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피부가 지켜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 있는 화장품회사의 일본시장 진출에는 큰 장벽이 있었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그 장벽도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의 화장품 제조 허가를 취득한 회사만이 일본 약사법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분에 관해서는 일본 화장품회사와 똑같이 본인 책임에 따르기 때문에 소비자 측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슬로우 라이프나 로하스 같은 내추럴 지향이 트렌드가 돼가고 있어 수입된 화장품 중에서도 식물을 원료로 한 해외 화장품이 늘어나 일본에서도 다양한 자연주의 화장품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가닉 화장품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자연주의를 외치면서 합성계면활성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름만 내추럴 화장품인 제품도 있습니다.

제2장 ‘화장품의 거짓말’은 점점 더 교묘하게

‘오가닉이라고 안전’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일본 화장품 업계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만한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회사의 체질 문제는 꽤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속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가며 본인 스스로 화장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화장품에는 듣기에 좋고 이미지가 좋은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가닉 화장품’이나 ‘내추럴 화장품’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가닉 화장품’이란 뭘까요?

어떠한 상품을 ‘자연주의 화장품’이라고 하는 걸까요?

‘내추럴 화장품’이라니 어떤 걸까요?

덧붙여 식품에서 말하는 ‘오가닉’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 등의 화학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생산된 식품입니다. 표시에는 규제가 있어서 ‘유기 JAS 마크¹¹⁾’가 없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유기농’, ‘오가닉’과 같은 명칭 표시를 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 관해서는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테죠.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가닉 화장품이란 이렇다고 합니다.

11) 역주.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부여하는 유기농 인증마크다.

‘허브 등 천연 소재를 화장품 재료로 사용해 화학 합성 물질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자연주의 중에서도 친환경적이며 유기농법으로 키운 식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 과정까지 친환경적인化妆품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해초나 광물을 사용한 헤어케어 용품이나 메이크업 용품도 있다.’(2013년 4월 8일)

그러나 저로서는 ‘자연식품’이나 ‘오가닉 식품’ 등 식품에서 연상 받아 만든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자연식품은 좋다. 오가닉 식품은 몸에 이롭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자연주의 제품. 오가닉으로 만든 게 좋다’는 생각으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아버지도 ‘자연식품은 있을 수 있지만 자연 화장품이라니 있을 수 없다’라며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자연식품은 음식이며 점막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에 반해 화장품은 음식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겁니다.

피부는 장벽 기능이며 흡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피부가 영양을 흡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기 등을 보면 화장품 성분 일부에만 오가닉 성분을 사용한 경우도 오가닉 화장품이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정의 내린 건지 알 수 없으나 논케미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화장품회사도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런 화장품회사의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오가닉인지 아닌지’ 피부의 생리를 생각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서장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오가닉 화장품이나 자연주의 화장품에 배합된 성분이 ‘식물 유래인 점’에 그리고 ‘합성계면활성제와 병용된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게 2013년에 발생한 ‘가네보 미백화장품 백반증 피해’였습니다.

‘백반증 피해’가 보도되지 않은 진짜 원인

가네보 백반증 피해에서 문제가 된 미백화장품은 자연주의인 점을 세일즈 포인트로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인 물질이 된 4HPB(로도테놀) 12)는 새롭게 발견된 ‘식물 유래 천연물질’이자 4HPB가 배합된 제품은 ‘의약부외품’으로 인가를 받은 겁니다.

백반증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피부색은 멜라닌 색소 양으로 결정됩니다. 검게 되는 멜라닌 색소 양이 많으면 피부는 검게 되고 적으면 하얗게 됩니다. 멜라닌 색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피부 내부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입니다. 백반증은 멜라노사이트가 데미지를 받아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없게 돼 색이 하얗게 빠져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흰 색소가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피부색의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망가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이 멜라닌을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는 표피 가장 밑에 있습니다. 즉, 성분을 그곳까지 침투시키지 않으면 미백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반드시 침투제 즉, 합성계면활성제와 함께 배합합니다. 그것도 강력한 것으로 혹은 여러 합성계면활성제를 사용해 작용을 강화한 겁니다. 4HPB가 나뉠 것처럼 보도됐지만 결코 4HPB라는 성분만이 피해 원인은 아닙니다. 4HPB가 피부 최하층까지 침투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4HPB라는 한가지 성분만이 나쁜 게 아니라 **합성계면활성제 남용이 이번 피해의 본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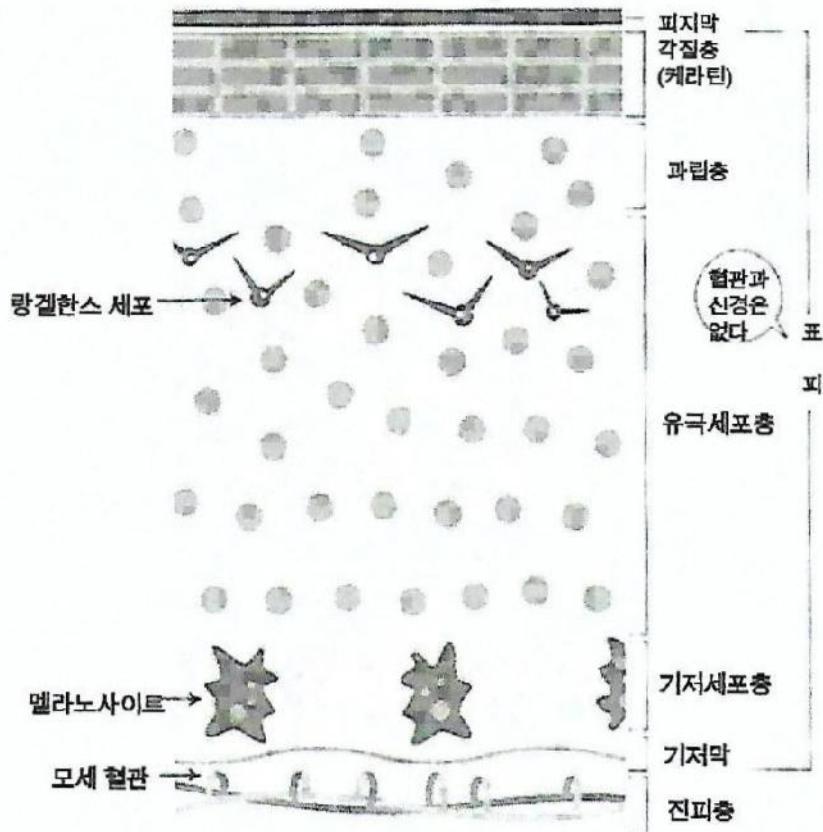
저는 이런 위험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가네보화장품회사의 자세에도 강한 의문이 들지만 백반증 피해가 발각된 후 보고한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

12) 역주. 가네보 화장품이 개발한 의약부외품 유효성분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니다.

이번 피해에 대해서 2014년 7월 15일 '가네보, "백반증" 문제의 원인 일부를 해명하는 데 성공'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출처는 마이나비 뉴스입니다.

피부 단면도



‘(중략) 물질 (저자주: 4HPB 대사물)을 과도하게 생산시키면 (원문 인용) 세포에 데미지(세포 장애)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외에 멜라닌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농도에서는 이런 세포 장애를 확인할 수 없으며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고농도(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농도의 약 100배)가 돼야 처음으로 발생한 것도 확인했다고 한다.’

피해가 보도된 지 약 1년. 자사 제품으로 인해 ‘세포가 데미지를 받는다(파괴된다)’라고 가네보는 겨우 인정한 겁니다. 가네보에 국한되지 않고 **화장품 업계 전체가 ‘4HPB’라는 한 성분의 탓으로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미백제를 합성계면활성제와 함께 병용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계면활성제 자체에도 세포 장애 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까지 한패가 되어서 이런 움직임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드디어 위험성 일부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합성계면활성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사 마지막에는 제품의 과다사용이 원인이라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뒷면에는 충격을 받아 우울증이 오는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에게 얼굴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합니다.

자세하게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사건은 식물 유래 성분과 합성계면활성제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단순히 4HPB라는 성분이 나뻐다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분명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01년에 ‘전성분표시’ 의무화를 메인으로 한 중요한 약사법 개정이 있어 그 이후 행정기관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업의 책임’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실제로 개정 전 행정기관 주최 설명회에서는 몇 번이나 ‘기업의 책임’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강조됐습니다.

2004년 약사법에 의거한 성령¹³⁾(GQP 성령) 공포에서는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걸 전제로 ‘이를 위한 체계를 확실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만이 강조됐습니다. 그렇기에 행정기관은 화장품회사에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이 있을 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메뉴얼 관점에서의 지적만이 눈에 띕니다. 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소비자를 지킨다는 자세는 아닙니다.

소비자를 지킨다는 것은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면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떠한 성분이 안전하고 어떠한 성분이 위험한지와 같은 지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으로 돌리는 일은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을 수는 있어도 무엇보다 중요한 ‘방지’가 불가능합니다. 합성계면활성제를 많이 쓴다는 점이 약한 피부, 건조한 피부, 더 나아가서는 민감한 피부 등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피부가 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화장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 사람은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최근에 업계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는 화장품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땀에도 트러블이 발생해버리는 분까지 계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진심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메뉴얼이나 제품의 핵심이 아닌 ‘품질 유지’의 관리체제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진짜 문제점(화장품의 어두운 부분)에 손을 대지 않으면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13) 역주.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인 부(部)에 해당하는 일본 각 성(省)의 장관이 제정한 법령.

‘의약부외품’으로 승인받은 약용 화장품이라면 소비자는 특히 성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 화장품회사에서 교묘하게 마련한 법의 허점**입니다.

효과·효용이 있다는 화장품은 업계 의도대로 의약부외품으로 남았습니다. 미백 화장품 등은 효과가 있는 이상 잠재적으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큰데 사용하고 있는 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성분이 아니라 광고하기 좋은 성분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괜찮습니다. 이대로는 아무리 성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판단할 수단이 없습니다.

백반증 피해 건에 관해서 피해를 낸 미백화장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승인한 이상 행정기관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성분이 양호해서’ 깨끗한 피부를 가지는 건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화장품 독성 판정 사전』. 이 사전은 화장품 성분의 용도와 독성을 이해하고 화장품의 질을 판정할 수 있는 사전이자 약 6,200종의 성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성분 하나하나 화학식을 보면서 아버지와 야간에 작업하며 위험성을 판정해 작성했습니다. 10년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분께서 읽어 주시고 현재도 출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저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매우 아쉽게도 이 사전이 본래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바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때로는 명백하게 악용되기도 합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화장품회사가 이 사전에서 독성이 있다고 판정된 성분을 피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동시에 미용에 적극적인 여성들이 이 사전을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지적받은 성분이 배합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게 된 듯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 화장품은 성분이 양호하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라는 게시글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확실히 독성 있는 성분을 피하는 것은 피부에 이롭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의 목

적과 기본적인 피부조직을 이해한 후 만들어진 화장품이 아니라면 이러한 노력도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예를 들면 ‘비누로 안전하게 화장을 지운다’라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유명한 여배우가 광고에 나와 ‘논케미컬 화장품’, ‘화학성분 0%’라고 강조하는 회사의 클렌징 제품은 확실히 합성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며 그 자세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화장해서 생긴 때는 기름으로 인해 생긴 때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비누가 모든 화장을 지우는 데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비누에 수많은 식물 엑기스를 넣어 마치 ‘마법 미용 비누’라고 내세우는 제품도 있습니다. 성분 대부분에 독성이 없었다고 해도 미약하기는 하나 비누도 계면활성제입니다. 피부가 가장 무방비해지는 순간은 세안할 때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많고 피부가 약한 경우도 많습니다. 좋다고 생각해 배합한 식물 엑기스가 피부를 자극해 버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연주의 화장품이나 오가닉 화장품에 세안 제품뿐만 아니라 토너, 크림, 색조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화장품에 다양한 식물 엑기스가 들어가는 걸 빈번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한 ‘보존제 0% 실현’이라는 광고 문구도 자주 듣습니다. 물론 합성계면활성제를 남용하고 있는 화장품보다 몇십 배나 양심적입니다. 그래도 피부조직을 이해하고 정말로 피부 환경을 생각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제공하려는 화장품회사만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분에 들어있는 독성에 착안해 안전한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생각은 최근 일본 국내의 오가닉·자연주의 화장품에서 보이기 시작한 경향이며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피부를 생각한 화장품을 만드는 데는 ‘독성이 있다고 해도 사용 목적이나 배합량이 적절하다면 사용해도 효과적인 제품도 있다’라는 판단 기준을 이해하지 않고 독성이 발견되지 않은 성분만을 모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선은 피부조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분을 안전성 심사 없이 제품화할 수 있게 된 무법지대인 화장품 업계. 『화장품 독성 판정 사전』이 발행되고 시간이 흘러 사전에 게재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도 다수 나왔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이 사전을 판정 기준도 세우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경우도 보입니다.

성분은 언뜻 안전해 보여도 피부조직을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제품이 출시돼 새로운 화장품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자로서는 답답함이 커질 뿐입니다.

‘마유’, ‘호호바오일’ 등 오일 하나만으로는 아름다워질 수 없다

식물 엑기스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 인기 있는 마유나 호호바오일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을 지탱해주는 성분 중 하나가 ‘피지’입니다. 피지는 우리에게 천연 크림입니다. 게다가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층을 지키기 위해 크림은 옛날부터 피지를 대체할 수 있는 오일과 땀을 대체할 수 있는 물을 섞은 걸 사용해왔습니다.

진심으로 미용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피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일만으로는 부족하며 물만으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 오일만을 계속해서 바른다……피부조직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너무 모여 있어서 부전각화¹⁴⁾를 초래한다
- 과도하게 물만 계속 공급한다……피부가 물을 너무 먹게 돼서 부전각화를 초래한다.

‘부전각화’란 피부 각질의 재생이 막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질층은 늘 죽어가

14) 역주. 건강한 피부의 세포 주기가 28일이지만 부전각화증은 세포 주기가 빨라져 미성숙한 세포가 표면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각질 표면에 건조가 진행돼 민감한 피부로 바뀌고 빠르게 각질이 벗겨지는 피부 상태가 된다.

고, 피부 내부에서 새롭게 생긴 피부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부의 신진대사입니다. 자주 마유나 호호바오일 등을 그대로 크림 대신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순수한 마유나 호호바오일 같은 기름류에는 합성계면활성제처럼 독성 있는 성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피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이 섞인 것을 말합니다.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종류별마다 영양분으로 섭취하는 기름의 종류도 다릅니다. 한 종류의 기름만으로 피부에 서식하는 몇백 종류나 되는 미생물을 키우는 건 어려운 일. 또 식물성 기름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성 기름보다도 부드럽고 가벼운 종류가 많습니다.

‘마유’는 피지가 아니다

‘마유는 사람의 피지와 구성이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라고 설명하는 화장품회사도 있습니다만 우선 마유는 말의 피지가 아닙니다. 말의 몸 안쪽에 있는 지방이며 소라면 소기름, 돼지로 말한다면 라드입니다. 돼지와 사람은 몸의 구성이 닮은 점이 많다고들 합니다만 돼지든 말이든 간에 인간은 아닙니다. 체온으로 말하자면 돼지는 38도, 말도 자고 있을 때나 조용할 때 38도, 달리고 있을 때는 40도가 됩니다. 체온이 다르다는 의미는 각각 기름의 점도도 바뀌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기름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마유가 사람의 피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유가 사람의 피지와 똑같다면 라드도 사람의 피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람도 체내에 있는 지방과 피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에 대해 생각할 때는 다른 동물이나 인간의 지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의 피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올리브유’에 의미는 없다

피부에 바르는 오일로 유명한 올리브유.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다’라는 광고도 있어 인기가 있었습니다.

항산화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활성산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생체를 산화시켜 몸에 피해를 준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 산소보다도 산화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해하는 작용을 ‘항산화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철이 산소와 접촉해 녹스는 것처럼 피부가 산소에 노출돼 녹슬게 될 수는 없습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며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 항산화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성분 중에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은 ‘비타민E’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올리브유의 비타민E 함유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화유나 캐놀라유, 해바라기씨유, 대두유, 참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과 비교하면 수십 분의 1 정도입니다. 올리브유의 산화 방지 작용은 특별히 내세울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어째서 올리브유가 이 정도로 유명해진 걸까?

원래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올리브유로 만든 비누의 세금을 감면해 올리브유의 생산을 장려한 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외부와 접촉해 있는 부분은 ‘각질층’이라는 죽은 세포 조직입니다. 죽은 세포에 열심히 항산화 성분을 바르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올리브유는 피부 장벽 기능으로 인해 피부 내부로 침투할 수도 없어서 피부 내부 조직에 작용해 항산화성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피부의 ‘각질층’이라는 벽을 형성하는 데 ‘산화’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오히려 **피부는 산화되면서 건강해집니다.**

피부의 지방산이 산화되어 피부에 딱 좋은 자극물질이 되고 각질층이 죽어가는 것을 촉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피부 내부에서는 부랴부랴 새로운 피부 조직이 만들어져 피부 표면의 각질층은 더욱 튼튼해지므로 피부가 건강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피부 장벽 기능을 부수지 않고 항산화 성분을 살아 있는 피부에 전해주고자 한다면 체내에서 심장이라는 펌프로 혈액을 통해 피부로 전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타민C 유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백이나 여드름 흔적에 좋다’며 한동안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간 화장품이 유행했습니다. 비타민C 유도체란 비타민C를 피부 속으로 침투하기 쉽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비타민C란 확실히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는 유효합니다. 한 상담자분 말씀에 따르면 화장품회사의 세일즈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C는 식품으로 섭취해도 대부분이 체내에서 사용되고 맙니다. 말단인 피부에 전달되는 일은 정말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피부로 직접 흡수하는 게 더 좋습니다.”

확실히 식사로 비타민C를 섭취해도 모세혈관까지 영양분이 가기 힘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류가 나빠져 말단까지 영양분이 가지 않게 되기에 심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타민C를 피부에 바르는 건 정말이지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우선 비타민C는 수용성이며 **수용성 물질은 본래 피부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으며 침투제 없이 피부 속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얼굴을 찜질 수건으로 닦거나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 낡은 각질을 벗겨내는 작용이 목적인 필로프 팩을 사용하거나 면도칼로 얼굴을 면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얼굴 면도가 왜 효과가 있냐 하면 솜털과 함께 낡은 각질을 없앨 수 있으며 적절한 자극이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때 피부는 무방비해지므로 그 후 올바른 처치를 합니다. 이러한 자극이 가장 피부를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촉진 시키므로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며 콜라겐도 비타민C나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편이 같은 효과를 냅니다.

화장품과 식품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물 엑기스'가 무섭다

현대에 들어서 피부가 약해진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950, 60년대까지는 피부 트러블이라고 하면 갈라지고, 살이 트고, 무좀이 생기는 정도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표피 형성에 중요한 비타민A도 부족하기 쉬운 시대였습니다.

현대는 포식할 수 있는 시대라 말하지만 '비누로 얼굴을 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합성계면활성제의 남용 등에 따라 피부 장벽 기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에는 식물 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독 성분을 포함한 엑기스라도 건강한 피부 장벽이 있다면 피부에 침투되지 않으나 장벽이 심하게 약해졌다면 유독 성분이 빠르게 침투합니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물에는 유독 물질을 포함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프리'라는 목초입니다.

오래전에 건강식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간 기능 장애 등을 일으킨 예가 있어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음식용으로는 금지됐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생노동성이나 농림수산성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컴프리에는 피부 표면을 유연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하며 현재에도 피부 유연제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로에'도 주의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건강이나 미용에 좋은 면도 있지만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기 쉬우며 생리 중이거나 임신 중인 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누룩산'이라는 미백 성분도 간 기능 장애와 발암성으로 인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왜인지 약용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것만 허용됐습니다.

식품 착색제로 사용돼 온 '꼭두서니'라는 식물의 '안트라퀴논'이라는 색소도 간 기능 장애 문제로 사용금지 됐습니다.

식물 엑기스의 무서운 점은 나중에야 위험성을 알 수 있다는 예가 적지 않

다는 데 있습니다.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장품회사는 서둘러

“앗, 죄송합니다. 사실 그 성분은 위험한 성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반증 피해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즉, 언제 ‘위험한 성분’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피부로 침투한 독성물질은 비교적 체내에서 순환되기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피부에 미치는 효과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일부러 화장품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덧붙여 설명해 드리면 일부러 피부 장벽 기능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효과만 생길 뿐이죠.

화장품회사나 원료 제조업체는 지구상의 다양한 식물을 연구하고 엑기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 성분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기 성분’에도 만만치 않은 독성

‘식물의 향기 성분’에 대해 살펴봅시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혹 들어오는 향기에 둘러싸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풀숲에서 느껴지는 후끈한 열기 같다고 말하기도 하죠.

식물이 내뿜는 방향성 독입니다. 식물이 해로운 미생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즉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지니게 된 식물 독의 한 종류입니다.

“양배추는 특정한 해충에게 조금이라도 먹히면 그 해충의 천적을 부르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발산한다.”라는 연구를 2010년 도쿄대학의 다카바야시 준지 교수팀이 발표하여 화제가 됐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 성분이나 독을 만들어 천적을 쫓아내거나 적인 식물을 몰아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도 종종 식물의 향기 성분이 사용되는데 결코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성분도 있으므로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벤조산’이라는 화장품 성분이 있습니다. 안식향(安息香)이라는 식물의 수지(樹脂)에도 함유되는 성분으로 방부제로 사용되거나 발암성이 의심되는 성분입니다. 서장에서 소개해 드린 외국계 오가닉 화장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벤조산나트륨도 이것으로 합성되는 성분입니다.

‘살리실산’은 버드나무에 함유된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별다른 생각 없이 먹는 채소나 과일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렌지나 파인애플, 살구, 고구마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 방부제나 살균 작용을 고려해 배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열, 진통, 항류머티즘 작용이 있다고 여겨져 약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산성이 강하며 위 기능 장애를 일으킬 경우가 있으므로 과잉 섭취는 위험합니다. 화장품 배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살리실산을 일체 사용 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긴 화장품이 안전하다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곰팡이가 생길 원료라는 점 자체가 문제입니다. 곰팡이는 발암성이 높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쁜 면이 나오지 않도록 방부제 목적으로 정말로 최소한의 양이 필요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살리실산도 피부에 서식하는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할 정도의 배합인지, 아니면 상당한 양을 넣는지 배합량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라벤 프리를 비롯해 현재 방부제 미사용을 강조한 제품이 많이 보이지만 피부조직을 제대로 이해한 화장품에 **방부제는 필요한 성분이며 조심해야 할 점은 배합량**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감귤류 성분’은 주의하자

쿠마린이라는 식물 향료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바르는 것만으로 트러블이 생기거나, 바른 후 햇볕을 쬐면 트러블이 생기는 등 자극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쿠마린의 유도체(침투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자 쿠마린보다도 종류가 많은 푸로쿠마린은 햇볕을 쬐면 기미가 생기는 '광독성'을 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푸로쿠마린은 운향과, 미나릿과, 콩과 식물 등 많은 식물에 분포해 있고 과실이나 열매껍질에 많은 점도 특징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들 성분이 배합된 화장품은 피해야 합니다. 혹은 이러한 성분을 제거한 원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지만 감귤 껍질을 피부에 문지르면 안됩니다. 유자탕 안에서 피부에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귤류에 흔히 포함된 리모넨¹⁵⁾은 용제(溶劑)여서 기름을 녹이는 힘이 강해 피부에 있는 기름을 너무 없애는 것은 아닌지 배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재료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식물 엑기스'가 많아지면 위험성도 더욱 UP

식물 엑기스를 조금 넣는 게 아니라 몇 종류나 되는 엑기스를 대량으로 넣은 화장품도 발견됩니다.

발견할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만큼의 엑기스를 넣는 걸까?'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엑기스는 독을 약화시키고 이용해야 하므로 엑기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화장품에 관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용할만한 성분도 아니며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품에 다양한 식물 엑기스가 다량으로 포함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세안이나 클렌징을 할 때처럼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질 때 사용하는 화장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나뭇잎과 뿌리를 통해 만듭니다. 많은 성분이 합쳐져 그 효과는 이론 상보다 크게 됩니다.

15) 역주. 감귤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무색투명한 액체이다. 식음료의 향료로 많이 쓰인다.

이러한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화장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화장품회사는 그저 덧셈과 곱셈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일단 집어넣고 보자. 그럼 보습이나 미백, 주름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 만들어질 테고 이득인 제품이라고 생각할테니까’

‘듣기 좋은 성분을 많이 집어넣자. 그러면 어쨌든 여성 고객들이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최고급 초밥과 최고급 스테이크를 한 냄비에 넣어봤자 최고급 요리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떻게든 사용하고 싶은 식물 엑기스가 함유된 화장품과 만나게 된다면 그 화장품의 성분이나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 보세요.

정말로 엑기스에 공을 들여 만들었다면 왜 이 엑기스와 저 엑기스를 배합했는지, 왜 이 분량으로 배합했는지 라는 이유가 보일 겁니다. 설명에 이해가 갔을 때 사용을 시작해보세요.

식물 엑기스는 독성도 있습니다.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골라야만 합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구희연 외 1인(2009) 『(많이 바를수록 노화를 부르는)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거름

p.126~135, 화장품 성분의 공공연한 비밀 p.168~194, 천연, 홈메이드 화장품의 불편한 진실

대한화장품협회(2008) 『화장품 성분 사전』 대한화장품협회

p.146, 세라마이드 p.160, 소듐라우릴설포아세테이트 p.162, 소듐벤조에이트

박성호 외 2인(2005) 『화장품성분학』 훈민사

p.48~59, part2 유상 Oil-phase

하병조(2017) 『화장품성분(전성분 표시로 알 수 있는 화장품성분 가이드)』 수문사

p.61~62, 25. 가수분해 물질의 성분 표기

2.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가나문자 표기법』

https://web.archive.org/web/20140201225300/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foreign_0104.jsp (2019년 3월 28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main_logo_id (2019년 4월 5일)

대한화장품협회 『성분명 사전』

http://kcia.or.kr/cid/search/ingd_list.php (2019년 4월 1일)

廣辭苑無料檢索 『廣辭苑(第六版)』

<https://sakura-paris.org/dict/> (2019년 5월 19일)

日本皮膚科學會 『ロドテノール』

https://www.dermatol.or.jp/uploads/uploads/files/news/J20150807_1.pdf (2019년 5월 14일)

cosmetic-info.jp

<https://www.cosmetic-info.jp/index.php> (2019년 5월 1일)

日本語抄録

本書は、著者の小澤貴子が祖父の時代から化粧品研究所を運営し、研究した化粧品の成分の虚と実について読者に伝える内容である。東京美容科学研究所の所長であり、『ウソをつく化粧品』（フォレスト出版、2015）の著者の小澤貴子は、本書を通じてオーガニック化粧品の成分に対して説明しており、化粧品の選別方法と使用法について説明している。

本書の構成は「こんなにある!ウソだらけの化粧品」、はじめにと序章、5章の本文、おわりにまで含め、合わせて9章になっている。今回の論文では、はじめにと序章そして本文第2章まで翻訳した。

はじめにと序章では、本文に入る前に、オーガニック化粧品がどのような成分を扱っているか、そしてオーガニック化粧品の成分が皮膚にもたらす影響について簡単に説明している。

第1章では、オーガニック化粧品が増えた背景と、それによって生じた化粧品の成分表示の抜け穴に対して説明している。また、化粧品の成分表示の抜け穴が発生した原因である化粧品の成文法の改定も詳しく盛り込まれている。

第2章では、オーガニック化粧品に含まれた成分に対して詳しく書かれている。化粧品に含まれた成分が皮膚にもたらす影響と、避けるべき成分も書かれている。前述されている代表的な成分被害事件を取り上げながら、間違った成分使用による被害について説明している。